

문화이론 Newsletter

문화이론전문지

Newsletter

n. 10 | 2015년 07월호

인문학의 위기와 대안지식공간의 가능성

최철웅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인문학은 위기에 처했는가, 아니면 열풍의 대상인가? 상반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이러한 물음은 오늘날 인문학이 처한 모순적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먼저 대학으로 눈을 돌리면 인문학의 위기는 자명한 듯 보인다. 대학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대상이 인문계열 학과들인 데서 알 수 있듯 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지위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오늘날 인문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취업시장에서 배제되고 소외될 운명임을 뜻한다. 그러나 대학 바깥을 둘러보면 인문학은 그 어느 때보다 제 존재와 필요성을 과시하는 듯도 보인다. 정부와 기업이 앞다투어 인문학적 통찰과 감성을 강조하고, 백화점, 문화센터, 공공기관 등지에서는 인문학 강좌가 성행을 이루고 있다.

바야흐로 '인문학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는 인문학이 전문가들의 전유물이기를 그



치고 대중들 곁으로 한층 다가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인문학의 위기는 도태되어 마땅한 인문 '학과'와 인문 '학자'들의 불멘소리 아닌가?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말로 비단 분과학문(문·사·철)만이 아니라 삶의 기예이자 교양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식과 실천을 지칭하고자 한다면, 이런 반문은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인문학이 새로운 시대적 요청(산업적 필요에서부터 학문적 쇄신에 이르기까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화에 젖어있다는 비판 또한 나름 수긍할 만한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니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우리가 아쉬워 할 이유가 무엇이라?

그러나 인문학의 위기를 인문학자들의 엘리트주의와 특권이

해체되고 지적 평등이 실현되는 지식의 민주화 과정으로 이해하기엔 어딘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다. 분과학문으로서의 인문학과 교양으로서의 인문학을 대비시키는 이런 유의 인식은 은연중에 인문학의 또 다른 면모를 무대에서 지우고 있다. 바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비판적 사유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도구로서 인문학의 가능성이다. 오늘날 진정 위기에 처한 것은 특정 인문학과 따위가 아니라 '비판의 정신' 그 자체이다.

대학이 인문학을 추방하려는 것은 단지 취업률이 낮아서가 아니다. 일부 구성원들이 인문학의 이름으로 대학 구조조정과 기업화에 공연히 저항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인문학을 대중화하는 것은 비판적 사유가 거세된 인문학이 오히려 지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인문학의 부족이나 쇠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문학의 변형'이다.

...(이야기 더보기)

편집위원 칼럼

독점과 모욕의 자리

권명아
(동아대 국문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는 제도 비판이 불가능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도 비판을 인격화해서 개인적 모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치 제도를 비판하는 걸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여 보복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같이 한탄하지만, 자신이 속한 제도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서는 모욕당했다고 펄펄 뛴다. 한국문학 제도 비판도 이런 악순환을 고스란히 반복해왔다.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의 제도가 추상적이고 공적인 형식이 아니라 인격화된 사적 형식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문학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을 때도 비판을 사적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한국문학이 자기비판의 계기를 놓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후 한국문학 제도는 인격화된 사적 형식의 면모를 더욱 심화해왔다. 논란이 되는 신경숙의 표절과 ‘문단 권력’에 대한 논의가 제도 비판의 계기가 되려면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어야 한다. 게다가 이른바 ‘문단 권력’의 안쪽에서는 문학 제도 비판을 ‘낙오자들의 원한’ 정도로 치부해온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인격화된 사적 형식으로 경도된 한국문학 제도가 출판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한국문학 제도에서 창비와 문학동네는 ...(더보기)



‘이야기’라는 정글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 도착했을까. 얼마나 많은 견제와 외면과 망각의 힘들과 싸워왔을까.

By 오혜진(근현대문화 연구자)

과연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고, 이야기의 세계는 공정할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자꾸 해보게 되는 생각이다. 한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번뿐이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다른 무엇이 돼서 살아볼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야기의 세계에서는 다르다. 왕자의 삶과 거지의 삶, 재벌의 삶과 대학생의 삶, 심지어 외계인의 삶이나 짐승의 삶마저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려질 수 있는 게 이야기의 세계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의 세계야말로 진정 모든 존재에게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풍부함’과 ‘다양성’이라는 ‘이야기 세계’의 메리트를 마음껏 누리고 있을까? 소설과 영화, 티비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세계도 내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폭의 너비만큼이나 비좁은 것 같다. 일일드라마를 보면 으레 큰 식탁에 빙 둘러앉아 식사하는 대가족이 나오고, 평일 저녁드라마를 보면 의사와 변호사, 재벌과 대학생들의 권력다툼과 연애가 나오고, 주말예능을 보면 귀여운 아이들을 들쭉날쭉 낚아 단란한 일상을 향유하는 이성에 가족이 나온다. 좋다.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들은 대중 서사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철거민, 해고노동자, 국가폭력 희생자, 쪽방촌 노인, 성소수자들은 매일 수만 명이 지나다니는 ...(더보기)

문화과학 월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계간 『문화/과학』 정기구독제를 월 후원회원으로 전환합니다.

『문화/과학』은 71호부터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편집위원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편집체제로 독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 독자들의 외연의 폭을 넓히려는 대중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계간 『문화/과학』은 정기구독제도에서 월 후원제도로 전환하여 출판 재정을 안정화하

고 다양한 독자 서비스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회는 『문화/과학』이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문화이론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면가왕, 클레오파트라의 가면 놀이

사람들은 클레오파트라가 김연우라는 것을 확신해도 마음 한 구석에는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반전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

By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매주 일요일 늦은 오후에 방영되는 문화방송의 <복면가왕>이 요즘 화제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가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모든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4연승을 달리면서 그 가면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독주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가면을 벗길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가면놀이가 제대로 흥미를 끌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승리가 계속 될수록 가면의 주인공에 대한 심증은 확증으로 바뀌고 있다. 4주 연속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가창력의 소유자, 작은 키의 남성 보컬, 고음에서 숨길 수 없

이 드러나는 특유의 보컬 음색, 목에 있는 두 개의 점, 그리고 타 방송 프로그램에서 부른 '오페라의 유령'과의 높은 싱크로율 등 클레오파트라가 가수 김연우일 거라는 예측은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아주 분명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복면가왕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식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가면놀이의 독특한 심리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복면가왕의 게임은 노래 대결에서 지는 사람만 가면이 벗겨지는 룰을 가지고 있다. 클레오파트라가 노래 대결에서 이기는 한 그의 가면을 벗길 수 없다. 아무리 클레오파트라가 김연우라고 주장해도 그가 노래 대결에서...(더보기)

편집위원 칼럼

<인사이드 아웃>이 뒤집지 않는 것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피트 닥터 감독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제목 그대로 '안팎을 뒤집어' 보여준다. 여기서 뒤집혀지는 '안'은 인간의 뇌, 정확히는 뇌에 위치한 감정들이다. 영화는 라일리라는 11살 소녀의 삶과 그녀의 뇌 속에 있는 의인화된 감정들(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을 교차해서 보여준다. 골자는 라일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감정들 간의 상호작용 혹은 권력투쟁으로, '기쁨'과 '슬픔'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행복만이 제일이라고 믿는 기쁨은 슬픔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슬픔은 쉽게 감정을 변모시키는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거기서 벗어난다. 갈등 끝에 기쁨은 슬픔에 폭 져으면 기쁨이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노랑(기쁨)과 파랑(슬픔)이 손을 잡음으로써 녹색의 감정이 탄생하는 장면은 이 깨달음을 나타낸다.

픽사를 비롯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오늘날 가치의 변화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소수자, 약자, 소외된 자를 보듬으면서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강자의 도덕임을 조용히 설교한다. 빙봉의 '희생'이 기쁨을 탈출시키는 것이나 무서운 피애로의 기억이 제 때에 라일리를 깨우는 장면 역시 마찬가지다. 잊혀지는 기억들, 잊고 싶은 기억들도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한다. ...(더보기)

문화연대 소식 보러가기 (클릭)

문화연대 연대활동 소식

1. 콜트콜텍 수유문화제 <강정, 콜트콜텍 그리고 평화의 노래>

-일정: 7/29(수) 저녁 7시 30분, 흥대 클럽빵 -라인업: 김그양+양상상, 투스토리, 제8극장

2. 광화문 세월호광장 공간 '스튜디오 416' 상설 전시 <망각에 저항하기> : 8/2(일)까지

행사 후기

신경숙의 표절 그리고
문학권력

신경숙사태 1차 토론회 후기

박범기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석사 수료)

표절 논란의 확산

언제나 그렇다. 화 끊었다가 다시 가라앉는다. 한참 들끓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기대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잠깐의 반응일 뿐이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가라앉는다. 어떤 이슈든 대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 역시 지난달에 잠깐 들끓었던 이슈에 불과하다. 지금은 거의 다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는 이슈이다. 물론, 이 이슈는 중요한 이슈이고, 그래서 이후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이미 한풀 꺾여버린 이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6월 23일,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최근의 표절 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였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토론회는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을 전면으로 다루었다. ..(더보기)



단상과 전망-문화연대 주최 '신경숙 사태'

신경숙사태 2차 토론회 후기 By 천정환(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

영접결에 토론회 발제('몰락의 윤리학'이 아닌 '공생의 유물론'으로 : 문학장과 지식인 공론장의 구조 변동을 위하여)를 맡은 덕분에 '한국 문학장'을 둘러싼 제도적·물질적 상황과, 특히 주체들의 해묵은 정념(감정)과 인정투쟁의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 그런데 이 논쟁 아닌 논쟁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더 많다. 선정성을 내포한 보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만으로 사태를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장의 미래를 전망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동어반복과 평면적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

(1) 변곡점

어쩌면 우리는 한국 문학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라 보인다. 분명 낡은 것은 수명을 다하고 새 대안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다. 문제는 크고 복잡하며 해결의 전망은 어둡다. '문학판 바깥'이라 할 문화연대가 토론회를 조직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필요한 것은 기존의 문학권력 개념 또는 프레임을 업그레이드시켜, 다른 '문학'의 개념과 글쓰기, 다른 미디어전략과 독자들과의 관계- 문학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를 상상하고 결합하는 다른 방식, 다른 창작의 주체들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 문학문화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2) '주니어시스템'과 '문학소녀'

40대 이상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선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0대의 ...(더보기)

연구자료 각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최근표절사태와 한국문학권력의 현재-1차 신경숙토론회 자료집

신경숙 표절 사태와 한국문학의 미래(토론회 포함)-2차 신경숙토론회 자료집

현실의 '영웅'들을 찾아

“국가들의 기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공동체가 아니며 그런 적도 없었다. 어떤 나라의 역사가 한 가족의 역사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정복자와 피정복자, 주인과 노예, 자본가와 노동자, 인종 및 성별상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때로는 폭발하지만 대부분은 억압되는) 이해관계의 격렬한 갈등을 감추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의 세계, 희생자와 가해자의 세계에서 알베르 카뮈의 표현처럼 가해자의 편에서 서지 않는 것이 생각 있는 사람의 할 일이다. ... 가난한 이들의 외침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하워드 진)

제12회 『문화과학』 북클럽 참관 후기 By 정일수(중앙대학교 영문학 박사과정)



지난 6월 12일 금요일 초저녁, 예정된 오후 일정을 미루고 광화문 광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도착한 곳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 현재 이곳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과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는 공간이다. '신화' 속 한 영웅이 이토록 간절했던 적이 또 있을까. 영웅은 바라지도 않는다. 동상을 잠시 바라보며 역사 속에서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과 그에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을 생각해보았다. 영웅은 없고 비극만을 목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을 마주한 우리의 숙명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며 심지어 부활되기도 하는 것이 '영웅'이라면 그 영웅을 만든 비극의 희생자들은 항상 왜곡되고 뒤틀리며 지워져왔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어찌면 현실의 목격자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지 모른다. 기억의 매체와 수단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보의 범람과 그 속도에 짓눌려 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아닌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되묻는 것이 여전히 진행 중인 시대이다.

제12회 <문화과학 북클럽>이 비록 안산, 팽목항은 아니더라도 실내가 아닌 광화문 광장 한복판, 그것도 ...(더보기)

행사 후기

목포대 민교협·
문화과학
공동 세미나 후기

정원옥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강사)

지난 6월 11일, 목포대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의 목포대 분회)과 문화과학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 “대학, 위기의 담론에서 희망의 담론으로”가 목포대에서 열렸다. 목포대 민교협 총무를 맡고 계시는 홍석한 선생님께서 따르면, “목포대 민교협은 대학과 대학 교육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주요사업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 실천을 위한 첫 번째 행사로 “대학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토론이 5월 20일에 진행되었고, 문화과학과의 공동 세미나는 두 번째 행사로 기획된 ...(더보기)



연구자료 각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제도 발제문-솔루션포럼

문화연대 대안문화정책포럼-도시 문화예술공간의 공공성의 위기

예술인 소셜유니온, 예술인증명절차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문제점

계간 『문화/과학』 제13회 북클럽

제13회 계간 <문화과학> 북클럽

서비스 이코노미: 한국의 군사주의·성 노동·이주노동
(이진경 저,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5)



일시: 2015년 8월 13일(목) 늦은 7시
장소: 추후 공지

사회: 문강형준(문화평론가)
저자: 이진경(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문학학과 교수)
토론: 이해령(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정정훈(수유너머N)

『문화/과학』 페미니즘 세미나 안내

<문화/과학>에서 페미니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오혜진 편집위원이 커리큘럼을 짜주었고, 7월 18일(토)에 1주차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2주차 세미나는 8월 8일(토) 오후 2시 문화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편집위원들과 후원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 [1주차] 낸시 홈스트롬 편,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유강은 역, 메이데이, 2012. 3/4/5부
- [2주차]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5.
- [3주차]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역, 갈무리, 2014.
- [4주차]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 역, 갈무리, 2011.
- [5주차] J.K 김슨-그레엄, 『그 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이현재 외 역, 알트, 2013.
- [6주차] 피터 커스터스, 『자본은 여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박소현 외 역, 그린비, 2015.
- [7주차] 게일 러빈, 『일탈』, 임옥희 외, 현실문화, 근간.
- [8주차] 낸시 프레이저, 『포춘스 오브 페미니즘』, 임옥희, 근간.

『문화/과학』을 만드는 사람

편집자문위원/ 강내희 김세균 손호철 심광현 이득재 임춘성
 편집위원/ 강신규 강정석 권경우 권명아 김대성 김성일 김영선 김일림 김정한 노명우 문강형준 박소현 박자영 서동진 서영표
 손희정 오창은 오혜진 이광석 이기형 이기훈 이명원 이윤중 이지영 임동근 정원옥 정정훈 조동원 조선령 조형근
 주은우 천정환 최영화 최원 최철웅

편집인/ 이동연
 발행인/ 손자희
 편집/ 연구모임 아프폼(디자인: 그래피크제이) | 뉴스레터/ 정원옥 (디자인: 이안홍빈)